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 HEADLINE | | | |
|--|---|--|--|
| 뉴스 4P | 특집 13P | 인물 14P | 국제 18P |
| 복지 사각지대 놓인 소수 장애인 | [기획] 장애인단체 난립의 문제점 |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송정아 단장 | 베이스점핑 즐기는 장애인 화제 |
|  |  |  |  |

지체장애인 3천여명 경북에서 대규모 집회

동일명칭 법인 설립 허가한 경북도지사 사퇴요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전국 시·도협회장 및 회원 3천여명이 9월 23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최근 경상북도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9월 23일 오후 1시 경북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지장협 전국 시·도협회장 및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장협 산하에 설립된 이래 경북 지체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온 비영리 장애인단체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지난 8월 27일 동일명칭의 신규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란 명칭의 장애인단체가 두 곳이 된 상황이다.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기준에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경상북도가 우리 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상북도가 지역 장애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가 쌓아온 명예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동일명칭의 지역 법인 설립 허가

철회와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삭발식과 화형식을 진행하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9월 19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이하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신규 법인 설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집회 당일 경상북도는 비대위와 다시 가진 면담에서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12~13면〉

지장협, 중원대와 장애인 인재 육성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와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 이하 중원대)가 장애인 인재 육성을 위해 나섰다.

두 기관은 8월 28일 지장협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장애인 교육과정 및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장애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실현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이 장애인 인재 양성은 물론 장애인식개선과 사회통합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도 도모해 나가자"고 밝혔다.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지장협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지원 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새보람 매니아를 찾습니다.

혹시 20년전 발행된 오래전 새보람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새보람을 차곡차곡 편철하고 계신가요?

새보람매니아를 찾습니다.

새보람매니아라면 보유하고 계시는 **신문호수**를 적어 (예)저는 10호, 20호~40호, 51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oh@kappd.or.kr)로 보내주세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새보람을 아껴주시고 애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1년, 개선 사안 산적

후견인 지원 시스템 부재...후견인 선임도 오래 걸려

공공후견지원사업 시행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9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비용과 후견 관련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초반인 만큼 개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먼저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하며 실시간으로 상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선호 간사는 "후견 업무를 하다 보면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후견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후견인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용해 과태



'공공후견지원사업 체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9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료와 범칙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자동차 등록 현황 확인이 필요했지만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정보 조회뿐이었다"며 실제 난처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서영현 변호사도 후견인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서 변호사는 "후견인들이 본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들 때 즉시 자문 받을 곳이 절실하지만 현재 이러한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다"며 "결정문에 후견인

의 업무 범위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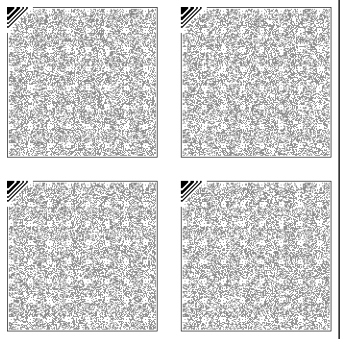
후견인 후보자이자 발달장애인 부모인 유영복 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인권유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건이 벌어진 후 개입하기 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 시간이 걸리는 후견인 선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이미현 간사는 "후견신청서류를 청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약 2개월의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있다"며 "후견인이 선임돼 합의과정과 합의금 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절차가 지연돼 합의는 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하고 합의금은 시설이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편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동호 사무관은 체계적인 후견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후견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내년부터는 후견인 지원 인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됐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600여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후견인을 연계하는 부분을 시설협회와 논의 중에 있다"며 "시설 1개소 당 최소 1명의 후견인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긴 시간이 걸리는 후견인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사업 지침을 개정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강인철 씨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강인철 씨가 낙점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자로 개방형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강 씨를 임용했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강 씨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실장,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성남시 보호작업장 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씨는 앞으로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

립,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 지원·육성, 장애인생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육성, 국립재활원 운영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정 4개년 계획 핵심과제 발표

24시간 활동지원 확대...평생교육센터 운영

서울시는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5개 핵심과제를 9월 4일 발표했다.

핵심과제에는 장애인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1급 중증장애인 100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2018년까지 지원 대상을 16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회 참여 교육이 시급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해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체육활동,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4개 권역별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거점복지관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를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 다중이용시설도 5개소 운영한다.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 2018년까지 사업계획을 계속 보완·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58호 2014년 9월 25일

회 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오창석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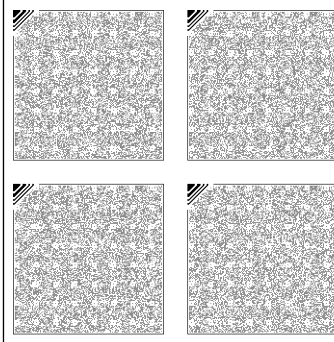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도 추석에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탑승 불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서 한 목소리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9월 2일 서울남부버스터미널에서는 ‘고속·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모두가 고향으로 향하는 추석 연휴, 미비한 편의시설 때문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30여명은 이날 서울남부버스터미널에서 서산, 예산, 태안, 양지, 천안, 청주행 시외버스 탑승을 시도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시외버스에 오



9월 2일 서울남부버스터미널에서 ‘고속·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르지 못했다. 휠체어 리프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고속버스와 시

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여행을 할 자유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즉각 관련법을 개정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도 제시했다.

요구안은 ▲광역·농어촌·고속·시외버스에 대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권 보장 계획 발표와 예산마련 ▲마을버스·전세버스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적 법률 조항 개정 ▲ 시내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 법률상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 법적 명시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 기준 개정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 반영 위한 종합 대책 및 법률 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논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 외에도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대구, 울산 버스터미널에서도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한편 9월 5일에는 고속·시외버스에 탑승하지 못해 고향에 가지 못한 장애인 30여명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15번 승강장에서 차를 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사 진행

9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세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9월 17일과 18일 심사를 받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협약 비준 국가는 2년 이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첫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번 심사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단장으로 정부부처 및 장애인개발원 관계자 26명이 참여한 정부대표단을 구성했다.

장애인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명이 이번 심사를 참관했다.

한국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각 조

항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30여개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여성, 장애아동,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가족과 가정에 대한 존중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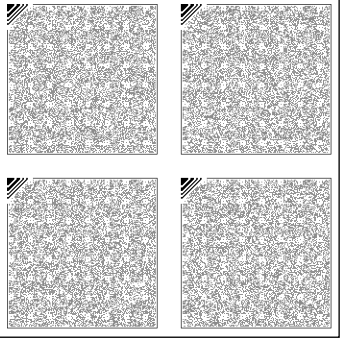
한편 국내 20여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는 민간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희망하는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이 제시한 사항을 보면 ‘유보

조항철폐와 선택의정서 비준’, ‘자립 생활과 탈시설화 정책’, ‘장애인 당사자의 모니터링 참여’, ‘장애인 고용의 국가 책임성 강화’,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액’ 등이다.

이번 심사는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이를 계기로 국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장애인

제도 지원 미흡...당사자 목소리 반영 필요



'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가 8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각종 복지 정책 수립에 소수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250만 등록 장애인 중 3%에 해당하는 언어, 심장, 호흡기, 자폐성, 장루·요루, 뇌전증, 간, 안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소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주류장애인 중심

으로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 장애인들에게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를 구축할 때 소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소수 장애인들이 참석해 장애유형별 고충을 토론했다.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은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윤석권 회원은 화상장애인은 외모 변화로 인해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윤 씨는 "안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은 경우 심리

적으로 위축돼 기회가 주어져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다"며 "안면 화상은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화상은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심장장애인협회 송순조 사무처장은 심장장애인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송 사무처장은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초음파를 자주 실시하는데 검사비가 18만원이나 된다"며 "심장질환자에게 심장

초음파 무료검사 바우처 쿠폰을 1년에 2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국뇌전증협회 환우회 장석원 공동대표는 뇌전증장애인은 제도적 지원도 미흡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장 공동대표는 "뇌전증장애인은 사회적 낙인감 때문에 장애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해고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은 근육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근육장애인은 인공호흡기가 고장 나거나 빠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기전 사무관이 참석했지만 다른 일정을 이유로 토론회 시작 전 인사말만 남긴 채 자리를 뒀다.

최 사무관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된 일정으로 토론회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 죄송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잘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 참가자들은 누구보다 소수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먼저 자리를 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 출간

장애인 관련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책자가 출간된다.

경찰교육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을 펴내다고 8월 22일 밝혔다.

'장애인 경찰조사 가이드라인'은 장애의 의미,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와 올바른 표현·인식, 장애유형별 조사 가이드, 장애인 수사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업무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화통역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주소와 연락처도 수록되어 있다.

경찰교육원은 가이드라인이 장애유형별 특성을 몰라 치안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거나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낮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경남 제외한 16개 시·도 법정기준 미달

대다수 지역이 장애인 콜택시 의무 도입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각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콜택시 시·도별 보급현황에 따르면 이를 지키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남도(156.1%) 한 곳에 불

과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강원도(15.5%)로 조사됐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17대로 이는 법정 기준인 110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경상북도(30.7%), 전라남도(32.5%), 충청남도(22.8%), 세종특별자치시(44.4%), 대전광역시(48.8%)의 장애인 콜택시 역시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

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의 운영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도입비용 일부는 국가가 지원하고 운전사 인건비, 유류비, 차량유지비 등 운행비용 전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지자체가 장애인 콜택시 1대당 4천만원 선의 차량 도입비와 월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이 저조하면 장애인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들의 권리와 편익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병원 환자 체벌 진료행위라 볼 수 없어”

인권위, 해당 병원장에 직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환자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손들고 서있도록 체벌한 행위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환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9월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 2급인 김 모(29)씨는 지난 2월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A병원 김 모 간호사에 의해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손들고 서있는 체벌을 받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도벽증세가 있었고 그때 마다 김 간호사는 김 씨에게 구두로 경고한 후 30분 동안 손을 들고 서있도록 했다.

그러나 김 씨의 도벽증세와 관련해 치료행위 등 별도의 진료기록은 없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

한 협약 원칙8 제2조는 “모든 환자들은 적절치 못한 의료, 다른 환자나 직원, 기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대 혹은 정신적 불안이나 신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의료목적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김 간호사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을 통해 치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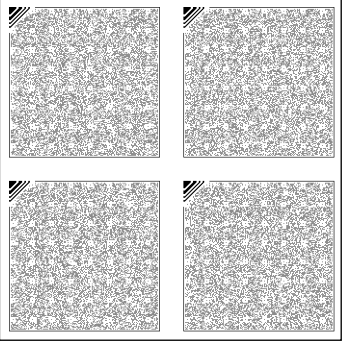
이어 “치료목적이 아닌 체벌 등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정신의료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김 모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시장에게는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를 체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서울 중구 삼일대로 보행약자 편의증진

서울 청계천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중구 삼일대로변 장교 4·5지구(장교빌딩 맞은편)가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보행약자도 걷기 편한 길로 바뀐다.

서울시는 ‘제40차 서울시 민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삼일대로변 장교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가로환경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일대로변 장교

4·5지구 도로에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돼 차량 속도를 줄여주는 ‘헵프식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또한 도로와 보도 연결 구간은 턱을 낮춰 휠체어 등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유도·점자 블록도 연속적으로 설치된다.

이밖에도 환경보존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기존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안내 표지판, 가로수, 분전함, 헤민서

표지석 등을 없애지 않고 이전 설치하며 빗물 투수성을 고려해 인조화강석 보도블록이 놓이게 된다.

장교 제4·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오는 2016년 3월 완공 예정이다.

한편 삼일대로변 장교 제4·5지구는 을지로3가역 인근 을지로 2가 교차로~시그니처 빌딩 전까지 약 100m 정도에 이르는 구간으로 차량과 보행자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SK텔레콤, 장애인 혜택 강화

데이터 확대...장애유형 고려한 요금제 신설

SK텔레콤이 장애인 고객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장애인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9월 1일부터 장애인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에 들어갔다.

추가되는 데이터 제공량은 150MB에서 최대 900MB로 기존 제공량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별

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SK텔레콤은 또 장애인 고객들이 자신의 통화패턴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신설한다.

시각장애인은 음성통화, 청각·언어장애인은 영상통화와 문자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장애유형을 고려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 인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17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 성료

강연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7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가 전국 17개 시도 230여명의 여성장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다.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종, 이하 제주지장협)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리더십교육, 자연천연염색 체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방문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주지장협 부형종 협회장은 “전국 여성장애인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도자로 거듭나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 협회도 여성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 개선해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에 정책건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가운데 전동휠

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12.2%, 수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9%로 나타났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외출시 수동휠체어보다 전동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동휠체어보다 혼자 조작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편의증진법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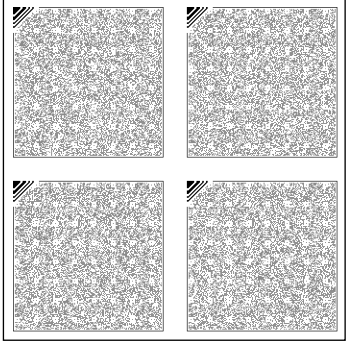
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칸막이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동휠체어에 비해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출입문 폭도 좁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핸드컨트롤 조절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 대변기 활동공간을 최소 폭 1.8m 이상, 깊이 2.0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장협이 8월 25일 편의증진연구소를 개소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가 산하에 편의증진연구소를 설치

하고 8월 25일 개소식을 가졌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경기 장애인 편리한 환경 만든다!

경기지장협, 편의증진연구소 개소

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장애인 이동 편의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지장협은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과 장애인 보행 및 시설 안전 연구를 위해 편의증진연구소를 개설했다.

앞으로 연구소 위원단 10명과 연구원 20명은 장애인 인권, 정책, 법률, 안전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인권연구는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연구는 정책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법률연구는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파악 및 개정안 마련, 안전연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설치 표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개소식에서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앞으로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 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부 양병준 부장

지장협이 나아가야 할 길

평생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살다 떠나신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故 장기철 초대회장.

별써 서거 9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생전 회장님의 모습이 생생하다.

회장님은 항상 장애인 회원과 조직을 챙기며 불철주야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셨다.

이런 회장님에게 직원들은 ‘장애인 복지도 좋지만 가정 복지에도 신경 쓰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건넨 정도였다.

어디를 가든 회장님은 장애인 복지만을 생각하셨다.

행사장을 방문했다가도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면 어김없이 장애인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이렇게 오직 장애인 복지만을 위한 삶을 사셨던 회장님은 우리에게 장애인 복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확고한 철학을 일깨워주셨다.

그의 희생과 노고가 없었다면 지장협은 오늘날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과거를 거울삼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지장협이 언제부터가 일부 불

순한 세력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의 모습을 잃어갔다.

현재 지장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에 힘쓰고 있다.

올해 7월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화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당사자단체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지장협, 복지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앞장서는 지장협’이란 새로운 비전을 공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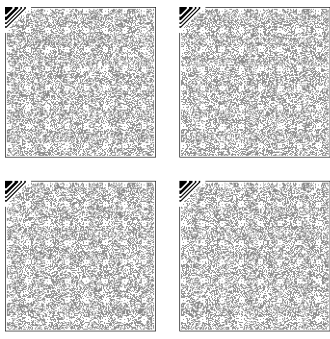
민주적·안정적 조직운영,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 단체 위상 복원, 미래지향적 장애인정책 개발, 장애인 인권향상과 역량 강화 등 4대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협회의 설립이념을 바로 세우겠다는 지장협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장협이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협회 조직원과 회원 모두故 장기철 초대회장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만 목표한 일들을 모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전국 500만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故 장기철 초대회장 9주기 추모식

김광환 중앙회장, “고인 뜻 받들어 열심히 펼 것”



지장협은 9월 4일 故 장기철 초대회장 9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故 장기철 초대회장의 9주기를 맞아 9월 4일 경기도 양주시 운경공원묘원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을 비롯한 산하 시·도협회장, 시설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故 장기철 회장님이 우리에게 장애인 복지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확고한 철학을 일깨워 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기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어 전국 500만 장

애인의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장협을 설립한 故 장기철 초대회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나눔 실천

추석 앞두고 장애인에 쌀·라면 전달



경북지장협 문경시지회 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에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후원회(회장 주대중, 이하 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회는 경상북도지체장애

인협회 문경시지회 산하 14개 읍·면·동 분회를 통해 장애인 가구 70세대에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

후원회 주대중 회장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 서로 돕고 배려하는 훈훈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박흥진 지회장은 “후원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경북 장애인 편의 전문가 교육 실시

‘2014년 제2차 시·군 민원편의증진 실무연수회’



‘2014년 제2차 시·군 민원편의증진 실무연수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 지역 장애인 편의증진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자리가 마련됐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경북지원센터(이하 경북센터)가 23개 시·군 민원편의지원센터장 및 실무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문경관광호텔에서 ‘2014년 제2차 시·군 민원편의증진 실무연수회’를 개최했다.

실무연수회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김광환 센터장의 특강과 홍현근 편의증진국장의 ‘편의시설

실무교육’,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황사를 부협회장의 ‘사회복지사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김광환 중앙회장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경북 지역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회식에는 문경시 안효영 부시장, 문경시의회 이응천 의장,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주대중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이경목 지회장 취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이경목 지회장이 9월 12일 공식 취임했다.

이 신임 지회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자활사업 활성화에 힘쓰며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지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공로패를 전달받은 이용성 전 지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헤어짐이 아쉽지만 포항시의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임식에는 이강덕 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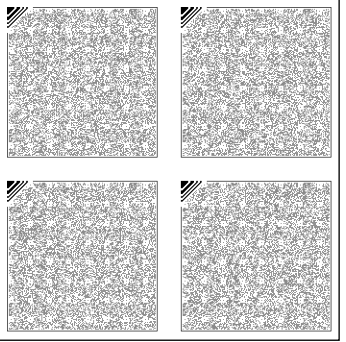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이경목 신임 지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박승훈 부의장, 지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울산지장협, 장애인 문화탐방 진행

전통문화 체험...에스오일토탈유탄유탄유노조가 지원



장애인 문화탐방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정태희, 이하 울산지장협)는 8월 21일 경북 영천 임고서원충효문화수련원에서 장애인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문화탐방에는 울산지장협 회원 및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한 장애인은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지장협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애인 문화 탐방은 에스오일토탄유탄유탄유노조조합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에스오일토탄유탄유탄유노조조합은 매년 행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영·호남 장애인 지도자 연찬회 열려 교류 사업 추진 약속...조직 발전 방향 고민



'영·호남 장애인지도자 연찬회'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이 강의를 펼치고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근, 이하 전북지장협)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주 풍남관광호텔에서 '영·호남 장애인지도자 연찬회'를 가졌다.

전북지장협과 경북지장협은 사례 발표를 통해 서로 장애인 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지

역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의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강의와 열띤 토론을 통해 향후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지장협과 경북지장협은 4년 전부터 서로 교류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충남지장협 후원회장에 성우종 씨

남다른 지역 장애인 사랑 눈길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건휘, 이하 충남지장협)가 8월 29일 (주)도원이앤씨 성우종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추대했다.

성 대표는 매년 충남지장협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위해 3천만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 장애인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날도 성 대표는 충남지장협 산하 15개 시·군지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가구 1500세대에 5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성 대표는 “충남지장협 후원회장으로서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남지장협 이건휘 협회장이 (주)도원이앤씨 성우종 대표에게 후원회장 추대패를 전달하고 있다.

충남지장협 이건휘 협회장은 “성 대표는 이번에 장애인 가구에 전달한 생필품을 충청남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을 통해 구매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대전지장협 동구지회, 장애학생 지원

장애인 가정 자녀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지회장 최재천, 이하 대전지장협 동구지회)의 작은사랑후원회가 지역 장애인 가정 자녀 지원에 나섰다.

작은사랑후원회는 초등학교 7명, 중학생 7명, 고등학교 8명,

대학생 2명 등 24명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전지장협 동구지회 관계자는 “장학금이 장애인 가정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지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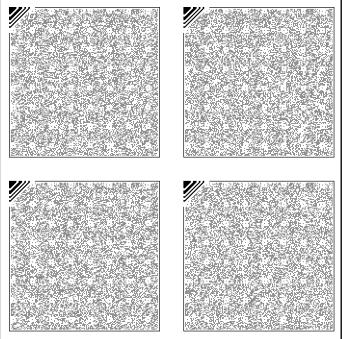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은사랑후원회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동구 지역 장애인 가정 자녀 330명에게 1억2천만원을 지원해왔다.



장학금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안양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이웃돕기 나서

안양시청 통해 지역 장애인에 추석선물 전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 부설 안양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대표 강명선, 이하 자립작업장)이 9월 3일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자립작업장은 지역 장애인을 위해 1750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제주 명품 오겹살)을 마련해 안양시청에 전달했다.

이날은 안양시 민경호 복지문화

국장,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선 전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립작업장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립작업장 강명선 대표는 “부족한 물량이지만 지역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장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안양시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장북, 추석맞이 마당놀이 열어

장애인 초청... ‘폭소 춘향전’ 공연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상구, 이하 성남장북)이 9월 3일 지역 장애인을 초청해 ‘2014 추석맞이 마당놀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은 극단이 직접 성남장북을 찾아 고전 춘향전을 각색한 ‘폭소 춘향전’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흥미로운 인물과 신나는 음악,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눈길을 모았다.

공연을 관람한 복지관 이용고객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공연장까지 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오늘 너무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성남장북 관계자는 “앞으로 성남 지역 장애인들이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 문화 접근성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장북이 9월 3일 마련한 ‘2014년 추석맞이 마당놀이’ 행사에서 ‘폭소 춘향전’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아산장북, 충남 탁구대회 상위 입상

한마음체육교실 · 보호작업훈련실 이용자 참가



아산장북 이용고객들이 제5회 충청남도 지적·정신장애인 탁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 이용고객들이 8월 26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충청남도 지적·정신장애인 탁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아산장북 한마음체육교실과 보호작업훈련실 이용자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개인기능경기 1·2위, 개인전 2위,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아산장북은 매주 화요일 복지관 및 지역사회시설 탁구장에서 한마음체육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배드민턴·당구·탁구 동호회와 아산휠스파워 휠체어농구단도 운영하고 있다.

정읍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정읍경찰서,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 강의



정읍장북은 8월 27일 복지관 강당에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북) 이 8월 27일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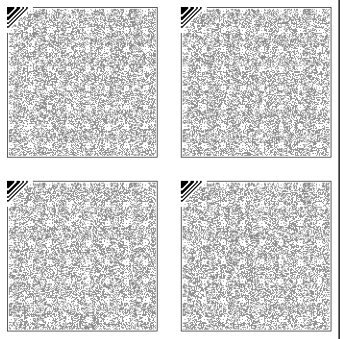
종사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정부가 성폭력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은 정읍경찰서 이형성 중앙지구대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정읍장북 박종형 관장은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읍 장애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영천장복, 장애인에 이·미용 서비스 제공

영천시미용협회가 지원...매월 1회 진행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이 매월 복지관에서 지역 장애인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용 서비스는 영천시미용협회(회장 우애자) 소속 헤어 디자이너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증장애로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천시미용협회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천장복 이제근 관장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영천시미용협회와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영천장복은 매월 장애인들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부장복 · 벽산사회봉사단 장애인에 추석음식 전달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이 8월 23일 노원구 장애인 가정에 추석음식을 전달했다.

이날은 벽산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함영승) 임직원으로 구성된 벽

산사회봉사단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배달했다.

북부장복 관계자는 “추석에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 또는 가족 구성원의 부재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을 위해 벽산사회

봉사단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벽산사회봉사단은 북부장복과 매월 ‘유쾌, 상쾌, 통쾌’를 주제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벽산사회봉사단이 장애인 가정에 전달할 추석음식을 만들고 있다.

괴산장복, 장애인 가족 소통의 장 마련 놀이치료 · 뮤지컬 관람 · 캠핑 등 진행



괴산장복 장애인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은 8월 장애인 가족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의 유대관계 향상을 위한 것으로 6회에 걸쳐 놀이치료, 뮤지컬 관람, 캠핑 등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그동안

가족임에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 구성원들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장복, 장애인 보장구 수리 타이어 및 부품 교체...정보제공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은 8월 13일 복지관에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김천장복은 이날 경북척수장애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지역 장애인들의 휠체어 타이어 및 부품 교체 작업을 벌였다.

또한 보장구의 올바른 관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천장복 관계자는 “보장구가 고장이 나도 수리를 받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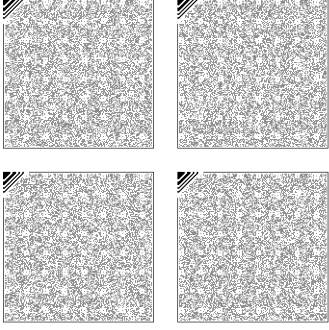


김천장복이 8월 13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제2차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남부장복, 장애인 정보화 교육생 모집

장애특성 고려한 교육 진행...전액 무료



남부장복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한다.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장애특성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9월부터 12월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공주, 논산지역은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남부장복 관계자는 “정보화 교육이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장애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수강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남부장복 직업재활팀(☎041-856-7071)으로 하면 된다.

달성장복, ‘별빛 속 행복캠프’ 진행

달성 지역 장애청소년 30여명 참가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이 장애청소년을 위한 ‘별빛 속 행복캠프’를 실시했다.

달성장복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장애청소년 30여명과 함께 구미시해평청소년수련원의

로 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캠프는 야외 놀이기구, 레크리에이션,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과 1박2일 동안 함께하며 즐거웠다”며 “이

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달성장복 정우선 관장은 “앞으로 장애청소년들이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별빛 속 행복캠프’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문경장복, 장애인에 점심식사 제공

이탈리안 레스토랑 ‘쿠치나 13’이 후원



문경장복 장애인에 점심식사를 제공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쿠치나13’.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이탈리안 레스토랑 ‘쿠치나13(대표 양성호)’의 후원으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쿠치나 13’ 양성호 대표는 직원들과 여름 휴가비를 반납해 모은 성금으로 문경장복 장애인 80여명을 위한 이탈리안 음식을

준비했다.

양 대표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경장복 박종훈 관장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쿠치나 13’ 양성호 대표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성장복, 장애아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숲체험 프로그램 실시...유대관계 향상에 기여



숲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복)이 장애아동 가족의 유대관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성장복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장승마을캠프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덕대학교 자원봉사자 9명이 함께 하며 장애아동 가족들의 활동을 도왔다.

한편 유성장복은 장애아동 가족들을 위해 연 2회 가족사랑키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술치료,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일명칭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하라!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규탄 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23일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에 동일명칭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전국 시·도협회장 및 회원 3천여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동일명칭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경상북도 도시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김창환 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손영호 부위원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전국 시·도협회장들이 식발식을 단행하고 있다.



이건희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협회장들이 동일명칭 법인 설립 허가에 반대하는 투쟁의 하나로 식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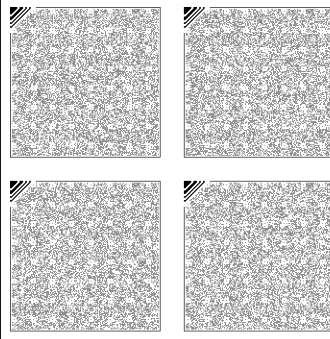


집회 참가자들이 화형식을 갖고 동일명칭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경상북도 도시사와 보건복지국장에 항의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화형식 후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 쓴 채 서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경상북도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 9월 23일 경북도청 앞에서 열린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사태 규탄 집회)

기획

장애인단체 난립으로 혼란 겪는 장애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자체와 관망하는 정부

유사명칭에 혼란 가중

경상북도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일명칭의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지체장애인 K씨(46).

여가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답답하던 참에 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가 전화를 건 단체에서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단체가 많은데다 유사명칭, 심지어

동일명칭의 단체들도 있어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유사명칭의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였다.

K씨는 “단지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을 뿐인데 단체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며 “같은 지역에 있는 두 단체가 명칭도 비슷하고 하는 사업도 유사하다 보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제도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경우에도 유사명칭 등 단체 난립에 따른 피해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종교분야의 경우 종파나 교회명칭 혼동으로 ‘스님, 목사, 신부님’이 어찌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전화를 수시로 받고 있다고 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사례수집과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한검도회도 200여개가 넘는 검도관련 단체로 인해 단종과 경기경력관리에 업무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

이에 국가기관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은 유사명칭사용금지에 관한 법 조항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단체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 보건복지부령 제78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기존의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일 경우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임의단체의 등록과 활동을 제안하기도 어렵다.

2000년대 이후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등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단체난립을 제한하

는 실효성 있는 조항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자체 담당자의 개인적 친분이 법인 설립 허가 결정에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실질적인 법적보호와 책임 있는 행정관리가 요구된다.

즉, 새로 설립되는 단체의 정체성이 이미 기존 단체와 중복되는지 또는 자원의 낭비와 타 단체와의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지 등에 대한 정밀하고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정당한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체계적인 승인절차에 대한 대안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 책임감 필요

사회복지관련 단체는 대부분 법인설립 목적 자체가 비영리에 있기 때문에 영리기업의 저작권 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의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 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난립에 의한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가 발생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또한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각종 비리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영리추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소외계층이 된다.

130여년 전 사회복지관의 시초인 영국의 토인비를 설립과 인보관운동 취지 중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 중복수혜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사회복지분야의 난립을 이미 130여년 전에도 우려했었고 이를 관리했었던 것이다.

이미 130년 전에 정리되던 이 문제를 무려 한 세기가 훨씬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도 무역 규모 10위권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복지의 위협이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관리를 통해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미래지향적 장애인복지 발전을 기대해 본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오창석 과장〉

성명서

장애인복지 역행하는 김관용 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

장애인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경상북도 행정에 500만 장애인은 분노한다 !!

우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가 척박했던 지난 198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설립된 이래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소외되고 박해받던 경상북도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지역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해 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이름으로 산하 23개 시·군 지회와 함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등의 장애인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도내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 28년간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로 활동하면서 지역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선도해 해결하였고, 그 결과 지역의 수많은 장애인의 찬사와 격려를 받으며 이들의 가슴속에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아로새겨져 있다.

그러나 특정인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우리협회와 동일한 명칭의 또 다른 단체 설립을 허가한 경상북도지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우리협회가 설립 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지역장애인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함은 물론 경북장애인복지에 역행하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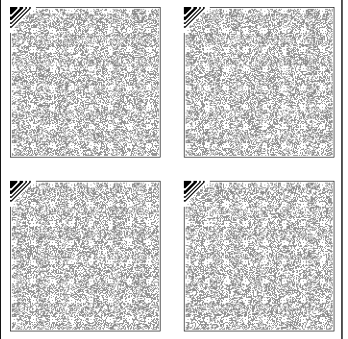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협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듣도 보도 못한 우리협회의 쌍둥이가 나타나 마치 나의 28년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 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니 우리협회의 28년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강그리 무시당하고만 형국인 것이다.

우리협회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명칭 사용을 허가한 경상북도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동일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전국 500만 장애인의 뜻을 모아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행정의 역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일명칭 지역법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북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송정아 단장

“무대 위에서의 행복, 함께 느껴요”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송정아 단장.

일반 극단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13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인 극단이 있다.

처음에는 소박한 장애인 연극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문 극단으로 자리 잡은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조그마한 연습실에서 송정아 단장을 만났다.

세상과 단절된 삶

1급 뇌병변장애인이인 송정아 씨(42세).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애 판정을 받은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았다.

지금은 곳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 집을 나서면 그 순간부터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이에 학교와 집만을 오가며 살았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지만 몸이 불편해 움직임이 빠르지 못하다 보니 취업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것과 단절된 삶을 살길 28년. 힘들어도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순간 젊은 나이에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전동휠체어가 없어 수동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2k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갔다.

우연히 서게 된 무대

조금씩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던 그녀는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던 중 장애인들이 예전의 자신처럼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고민하다 2001년 연극 모임 ‘휠’을 만들었다.

“장애계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전에 집에 갇혀 지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모임을 결성했죠”

그녀는 연극을 선택한 이유로 1999년 우연히 서게 된 연극 무대에서의 쾌감을 꼽았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지만 무대 위에 올라 조명을 받는 순간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교회에서 대본도 쓰고 연기도 하게 됐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긴장했던 순간 같아요(웃음).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죠. 이 경험이 ‘휠’을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휠’

연극을 사랑하는 중증장애인 30여명과 함께 시작한 ‘휠’. 처음에는 그녀가 일하던 장애인단체에 소속돼 1년에 1~2회 공연을 했지만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2008년 비영리단체로 독립됐고 2009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휠’은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극단을 모토로 삼아왔다.

“저희는 단원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연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극단을 만들고 싶어요”

‘휠’ 단원들은 연극에 대한 큰 열정만큼 실력도 뛰어나다. 장애와 관계없이 이 사회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꾸준히 수준 있는 작품을 연구하고 땀 흘려 연습한 결과다.

“사실 장애인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기대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공연 후 많은 분들이 놀라곤 하죠. 기존 장애인 공연이 학예회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배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배우의 연기에 빠져들어요. 그동안 ‘휠’의 공연을 보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많이 확인했어요”

무대에서 느끼는 행복

어느덧 설립 13년이 된 ‘휠’. 그동안 해온 공연만도 150여회가 넘는다.

오랫동안 극단을 이끌어 오다 보니 그녀는 극단의 장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흐지부지 사라지는 장애인 극단이 많아요. 그나마 ‘휠’이 현존하는 장애인 극단 중 오래된 편에 속하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게도 운영은 늘 힘들어요(웃음).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장애인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긴 하지만 많지 않은데다 장애인 은 매일 공연 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단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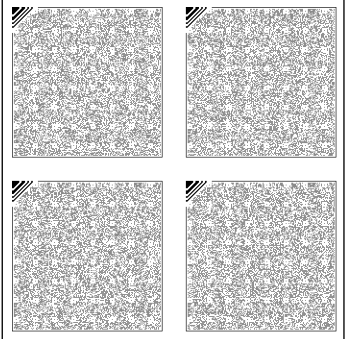
하지만 그녀는 연극인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일단 도전해보라고 조언했다.

자신이 무대 위에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들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연극을 통해 장애인들이 움츠러들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13년이란 시간 동안 연극을 놓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휠’과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어요”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를 달리는 사람들. 이들이 문화의 중심에 서서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호흡기 통해 감염되는 결핵

원인 없이 기침 지속되면 검사 필요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온다면 결핵을 의심해야 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비교적 쉽게 타인에게 감염된다.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결핵은 대부분 폐에 발병하지만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어 평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 다른 균과 달리 자연계에 살 수 없고 인체에서만 살 수 있어 결핵 환자만 결핵균을 전염시킬 수 있다.

결핵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온 감염성 환자의 비말핵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했을 때 발병한다.

결핵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실제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 시 100명 중 약 30명이 결핵에 감염되고 30명 중에서도 90%는 결핵균에 감염되나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증상이

없는 상태, 즉 잠복결핵상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10%는 결핵에 감염돼 증상을 나타낸다.

뚜렷한 원인 없이 2주에서 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기간 기침이 나고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거나 피로감을 느끼고 몸이 힘들 때도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결핵 검사는 흉부 X선 검사와 객담 내 미생물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객담 검사를 3회 실시해 항산균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시행한다.

객담 검사시 집에서 객담을 받았다면 냉장 보관했다가 병의원 혹은 보건소로 가져올 때 객담 통을 종이로 감싸서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결핵균은 햇빛에 약해 빛에 노출될 경우 감염이 있더라도 객담에서 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결핵치료는 표준치료 방법으로 6개월간 시행한다.

모든 결핵환자에게 약제 감수성검사를 시행하고 3개월 치료에도 배양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치료실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약제 감수성 검사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

결핵약을 꾸준히 잘 복용한다면 완치도 가능하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결핵약을 복용하는 중에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치료중인 병원이나 보건소에 상담 받아야 하며 치료가 중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간, 신장 질환 등으로 결핵 치료받을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와 상담 후 항결핵제를 복용해야 한다.

결핵은 햇빛이 들지 않거나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잘 감염되고 영양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등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감염이 잘 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음식을 같이 먹거나 같이 악수한다고

감염되지 않는다.

결핵환자가 사용했던 식기나 의복, 침구류, 책, 가구를 만진다거나 결핵 환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해도 감염되지 않는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염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남구보건소
공중보건의 장은호



환절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비상

꽃가루가 주범...감기와의 감별 중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은 진료인원 추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절기인 9월과 10월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작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 세 가지 주요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면역성 질환증상이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경우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알레르기’인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눈부심, 과도한 눈물, 두통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잘 치료하지 않으면 축농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완치보다는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연중 일정

기간에만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원인물질을 추정하기 쉽지만 먼 곳에서 날아온 꽃가루에 의한 비염의 경우 원인 추정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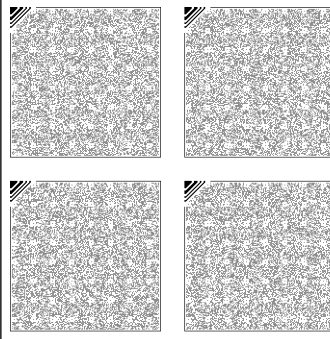
따라서 환자의 병력을 상세히 점검해 원인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비점막의 이학적 검사를 통해 감기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을 감기로 오인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돼 후각 장애, 두통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천식, 축농증, 중이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이므로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병원을 찾아 경과에 따른 약물치료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스페셜K 시상식

210개 팀 8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 벌여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스페셜K 참가팀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 스페셜K 시상식이 8

월 23일 국립극장 KB 청소년 하늘극장에서 열렸다.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는 문화예술 경연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오디션 행사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210개 팀이 참가해 성악, 서양기악, 타악, 대중음악, 대중무용, 한국무용, 연기, UCC 동영상 등 8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올해는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평창의 꿈’을 노래한 실력과 소프라노

차명연, 장애인 예술단 하트하트 오케스트라가 배출한 플루트 연주자 이영수 등이 참가해 화제를 모았다.

시상식에서는 전체 대상 1팀과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 입선 51팀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팀에게는 방송 홍보, 각종 행사 출연을 통한 사회 진출 기회가 제공된다.

이날은 대상·최우수상 입상팀과 제1회 장애인문화예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호동씨의 공연,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입상팀들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였다.

타악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동아리 ‘산울림’의 박순옥 대표는 “실력을 검증받기 위해 처음 출전하게 된 대회에서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욱 실력을 갈고 닦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2014 장애인식개선 UCC 공모전 개최

11월 2일까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접수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춘선)이 ‘2014 장애인식개선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대학생 포함)와 중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작품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순수 창작 영상물이면 된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이지(www.seoulrehab.or.kr) 또는 블로그(<http://majung1982.blog.me>)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응모작과 함께 이메일(nowucc@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일반부 및 중고등부 대상에게는 한겨레신문사장상, 최우수상에게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상, 우수상에게

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상,佳作에게는 한국통합교육연구회장상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을 주관하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박춘선 관장은 “작품 구상에서부터 응모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애 주제로 한 연극경연대회 개최

‘10분의 열정’…10월 15일 마포아트센터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이 10월 15일 마포아트센터 3층 플레이팩에서 연극경연대회 ‘10분의 열정’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장애를 주제로 한 연극, 마임, 퍼포먼스 등을 표현해야 한다.

심사 항목은 창의성, 전달성, 스토리 구성도, 작품 완성도 등이다.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은 이번 경연대회를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참가팀을 선정했다.

이후 공연예술분야 전문가가 참가팀을 찾아 만족도 높은 경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관계자는 “이번 경연대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4년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극단의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작품 문화상품으로 선정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전시·판매



김윤숙 작가의 장승 핸드폰 걸이와 이정희 작가의 테이블매트.



장애예술인 이정희 작가의 전통자수 테이블 매트와 김윤숙 작가의 장승 핸드폰 걸이 등이 문화상품으로 선정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전시, 판매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지난 7월 장애인 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은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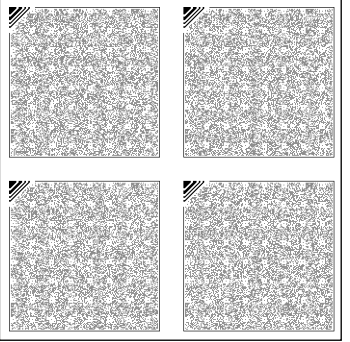
이정희 작가(지체장애 1급)는 “그동안 자수공예품을 납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에 꿈을 이루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윤숙 작가(지체장애 1급)는 “문화 주류계에서 문화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트렌드를 배울 수 있어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의 공예품이 비장애인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된 것이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예술인에게 문화상품 선정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2014 인천APG 필승다짐대회 열려

한국 선수단, “종합 2위 목표 달성할 것”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50일을 앞둔 8월 29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인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열린 필승다짐대회에서 종합 2위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올해 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반드시 종합 2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2002년 부산 대회에서 종합 2위, 2006년 쿠알라룸푸르 대회에서 종합 3위,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바 있다.

올해 23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은 양궁, 사격, 보치아, 탁구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종목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선수단 필승다짐대회’에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채택된 론볼, 요트, 댄스스포츠 등에서의 선전도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경기력

으로 장애인 체육의 매력과 감동을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종합 2

위 목표를 달성해 대한민국이 장애인체육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김성일 회장은 “이번 대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최고의 대회가 될 것”이라며 “선수들이 노력해온 만큼 남은 기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선수단은 지난 2월부터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인천 훈련원과 각 종목별 훈련장에서 훈련에 매진해오고 있다.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 연말 개관 지역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기대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이 연말 문을 연다.

울산시가 총 202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울산 제2장애인체육관은 부지 4499㎡, 연면적 6048㎡,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골볼장,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수치료실 등이 들어선다.

울산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제2장애인체육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선진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2장애인체육관이 개관하면 앞으로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5년 남구에 울산장애인체육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아산장복,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 동호회 운영...장애인 위해 탁구로봇 구입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아산장복은 지난 2005년 배드민턴동호회를 시작으로 당구동호회, 탁구동호회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탁구동호회 회원들의 개인 연습을 돕

기 위한 탁구로봇을 구입 지원해 눈길을 끈다.

탁구동호회 안형권 회장은 “그동안 개인 연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탁구로봇이 생겨 개인 연습이 수월해 졌다”고 전했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아산시의 많은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장복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아산장복 문화체육지원팀(☎041-545-7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지체장애인지역체육대회 개최

오는 10월 2일 창원종합운동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와 함께 10월 2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2014 전국지체장애인지역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지장협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전국지체장애인지역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체장애인 1만여명이 참가해 풍선기둥세우기, 좌식배구, 단체줄다리기, 400m 릴레이(스탠딩·휠체어) 등에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이날은 이벤트 경기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박터트리기 경기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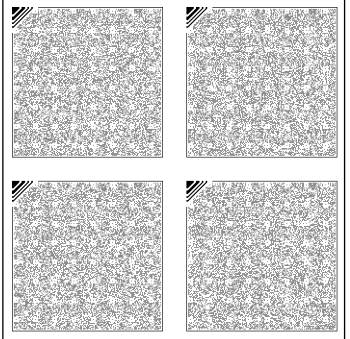
이밖에도 대회 참가들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생활체육 상담 및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상남도지체장애인지역체육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한다.



지장협이 10월 2일 창원종합운동장에서 ‘2014 전국지체장애인지역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지난해 경기 모습).

소리로 읽는 새보람



뉴욕시, 휠체어 장애인 탑승 택시 증차 연방법원 공식 승인...2020년까지 7500대

Judge approves city's push for wheelchair-accessible cabs and 30-cent surcharge

Judge George Daniels called i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cts of inclusion in this city since Jackie Robinson joined the Brooklyn Dodgers.' The settlement, which had already been approved by the Taxi and Limousine Commission, will implement a 30-cent surcharge for all fares starting in 2015 to fund a new fleet of 7,500 wheelchair-accessible cabs, with each costing about \$15,000.

BY STEPHEN REX BROWN / NEW YORK DAILY NEWS / Tuesday, September 16, 2014, 2:11 PM

376 23 SHARE THIS URL nydn.us/1s5fRhx COPY



뉴욕시가 오는 2020년까지 전체 택시의 절반을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뉴욕연방법원이 공식 승인했다고 9월 16일 뉴욕 데일리 뉴스, 뉴욕 포스트, CBS 뉴욕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011년 미국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 탑승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택시가 많지 않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택시 1만3000여대 가운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는 600대에

불과하다.

이에 당시 시장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는 2020년까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를 7500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소송 철회에 합의했다.

이후 2015년 1월부터 택시 요금에 3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입을 휠체어 탑승 시설 설치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바 있다.

휠체어 탑승 시설에는 1만 50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탈 수 있는 택시가 늘어난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뉴욕연방법원 조지 다니엘 판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택시를 늘리는 일은 뉴욕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며 “이번 계획으로 뉴욕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전체 택시의 절반을 휠체어 탑승 차량으로 만드는 뉴욕시. <사진 : New York Daily News 캡처>

베이스점핑 즐기는 장애인 화제

휠체어에 낙하산 장착...“도전 계속 할 것”



캐나다 출신 베이스점퍼 로니 비소넷. <사진 : Daily Mail 캡처>

건물이나 다리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베이스점핑을 즐기는 장애인이 화제다.

캐나다 출신 베이스점퍼 로니 비소넷(49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0년 전 미국 아이다호

에 위치한 트윈폭포에서 베이스점핑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낙하산 줄이 발에 엉켰고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강으로 추락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두 다리와 왼쪽 손이 마비돼 휠체어 없이 는 움직일 수 없게 됐다. 하지

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휠체어에 낙하산을 장착하고 베이스점핑을 다시 시작했고 지금까지 캐나다, 노르웨이, 중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베이스점핑을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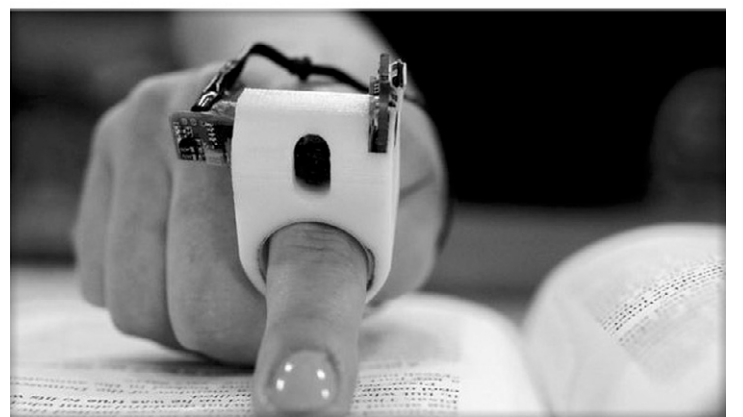
그는 지난해 8월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이 베이스점핑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종종 묻는데 물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지만 베이스점핑에 대한 나의 열정은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베이스점핑을 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도 걱정을 했지만 내가 베이스점핑을 좋아하는 것을 알기에 이해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에 옮기는 편인데 베이스점핑도 다른 일과 다르지 않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베이스점핑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IT, 문자 읽어주는 핑거리더 개발

MIT FingerReader device reads to the blind in real time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핑거리더. <사진 : CBS News 캡처>

최근 미국 메세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진이 문자를 읽어 주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했다.

핑거리더(Finger Reader)라 불리는 이 기기는 책, 신문, 잡지, 컴퓨터 스크린 등에 있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준다.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소형 카메라가 문자를 촬영하면 소프트웨어가 이를 인식해 컴퓨터 합성음을 들려주는 원리다.

핑거리더의 성능 테스트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제리 베리어(62세) 씨는 지난 7월 8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핑거리더는 실시간으로 글자를 읽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며 “병원에서 각종 양식에 사인을 하거나 식당에서 메뉴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핑거리더가 상용화되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핑거리더 개발팀은 1120만명에 달하는 미국 시각장애인이 제품의 잠재적 소비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포항지원센터

장애인이 편한편 모두가 편합니다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나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또는 갑자기 기스를 하게 되었을 때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등 모든 사람의 평등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평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모(지체1급) 씨는 얼마 전 종합병원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

장애인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쓰레기봉투와 걸레 등 청소도구가 널려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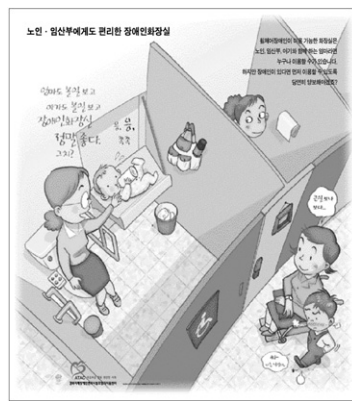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 문, 휠체어가 움직일 수 없는 좁은 내부 공간,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 손을 씻을 수 없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면대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속도로휴게소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을 보면 일반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텅 비어 있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장애인을 우선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오명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 이용하고 장애인이 온다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9.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

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 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노동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정년 60세 의무화’ 바로알기



지난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년 60세 시행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정년 60세를 적용

하고 있는 국가가 많았고 일본도 1998년에 이미 정년 60세 의무화가 정착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275곳을 대상으로 ‘직원의 정년퇴직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져 있다’고 답한 기업은 61.5%였고 이들 기업의 평균 정년은 ‘만 55세’였다.

‘직원들 중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전혀 없거나, 대부분 정년 전에 퇴사한다’는 답변이 42.6%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

대에 접어든 시점으로 출생률이 급증한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이후에는 재취업이 어려워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 실패 등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필자도 정년연장에는 찬성하지만 회사의 특성에 맞게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영세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고 40~50대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든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부당해고나 권

고사직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령 인력에 맞는 임금피크제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

이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정년 규정이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한 60세를 정년으로 간주하게 되며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근거로 60세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시행일을 보면 300인 이

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1956년생),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1957년생)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시행일 : 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 : 2017.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Q) 장애인 상속세 공제란 무엇인가요?

A) 상속으로 인한 재산취득은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비율의 누진세가 적용됨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미래

의 불안한 생활에 세제혜택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Q) 상속세 공제신청은 언제하나요?

A) 공제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

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상속세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는 상속세 과세 과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개시분의 경우는 75세에 달

하기까지 연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과세과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나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상속이 아닌 재산의 증여를 받을 때의 혜택은 없나요?

A)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

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장애인(위탁자)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야 합니다.

세제공제 한도액은 5억원이며 참고로 상속 시작 전 10년 이내에 증여해도 상속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36개 직종에 347명 참가해 기량 겨뤄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제작 직종에 출전한 선수가 작품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천안종합운동장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막을 내렸다.

올해 대회에는 정규직종 20개, 시범직종 7개, 레저 및 생활기능직종 9개 등 총 36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347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정규직종에서 76명, 시범직종에서 21명, 레저직종에서 26명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규직종 가운데 가구제작 부문

입상자는 이의신청으로 인해 추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규직종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참가 장려금이 지급됐다.

일부 메달 입상자에게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천안시가 주관했다. 내년 대회는 경기도에서 열린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잡 리마인딩 프로그램 운영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지원 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아산장복은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아산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일이 행복해지는 변화 - 잡 리마인딩(Job Remind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산장복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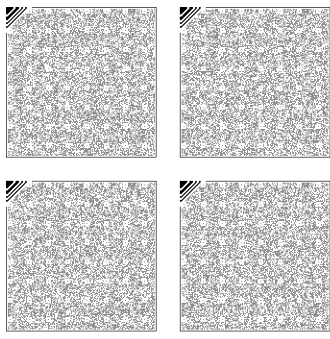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감정코칭, 의사소통기술, 개인 및 복지관 비전수립, 시간관리기술에 대한 교육

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5만원이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장복 기획·운영지원팀(☎041-545-0027)으로 하면 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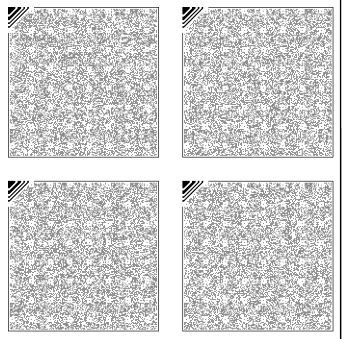


충청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지원 사업 기관에 선정돼 ‘일이 행복해지는 변화 - 잡 리마인딩(Job Remind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아산장복.

● 취업정보

| | 업종 | 업 체 명 | 근무지 | 연령 | 성별 | 근무내용 | 급여 | 보험 | 연락처 |
|----|-----|-----------|---------|--------|----|-------------|---------|------|--------------|
| 1 | 서비스 | 유플러스 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 50세 이하 | 무관 | 아웃바운드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2 | 서비스 | 유플러스 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 35세 이하 | 남 | 컴퓨터 서버관리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3 | 미화직 | (주)인영종합관리 | 경기도 안산 | 65세 이하 | 여 | 미화직 | 월 55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4 | 생산직 | 큰집곳간에뽕소리 | 경기도 광주 | 무관 | 남 | 생산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5 | 단순직 | 인앤드인 | 서울 관악구 | 무관 | 무관 | 생산직 | 월 11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6 | 단순직 | 인앤드인 | 서울시 중구 | 무관 | 무관 | 식당보조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7 | 미화직 | (주)티지엠 | 서울시 노원구 | 65세 이하 | 여 | 미화직 | 월 82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8 | 경비직 | 대성에프엠 | 서울시 동작구 | 65세 이하 | 남 | 경비직 | 월 13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9 | 사무직 | 현대해상 | 서울 전역 | 40세 이하 | 여 | 사무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0 | 경비직 | 삼우안전관리 | 서울시 양천구 | 65세 이하 | 남 | 경비직 | 월 135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11 | 생산직 | 아이퍼니처 | 서울시 강동구 | 60세 이하 | 남 | 생산직 | 월 15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2 | 사무직 | 씨티에스보안 | 서울시 강서구 | 50세 이하 | 무관 | 모니터 요원 | 월 15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3 | 미화직 | (주)한얼관리 | 서울 동작구 | 65세 이하 | 남 | 미화직 | 월 98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4 | 미화직 | 브랜드인덱스 | 서울시 강남구 | 40세 이하 | 무관 | 미화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5 | 생산직 | 가람헤어테크 | 인천시 계양구 | 무관 | 무관 | 생산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16 | 생산직 | 청밀 | 경기도 용인시 | 무관 | 무관 | 농산물 세척 및 포장 | 월 13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17 | 소독직 | 나라개발시스템 | 서울시 전역 | 60세 이하 | 무관 | 소독직 | 월 120만원 | 4대보험 | 02-2289-4321 |
| 18 | 미화직 | 나라개발시스템 | 서울 강서구 | 65세 이하 | 남 | 미화직 | 월 86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 19 | 경비직 | 동진종합관리 | 서울시 강서구 | 68세 이하 | 남 | 경비직 | 월 104만원 | 4대보험 | 02-2289-4322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랑의 쌀 전달식.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한화테크엠(주) 아산공장, 장애인 지원

아산장복 생활체육 동호회에 유니폼 전달



유니폼 전달식.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이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당구·탁구 동호회가 한화테크엠(주) 아산공장에서부터 유니폼을 지원받았다.

한화테크엠(주) 아산공장 유정상 상무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준비했다”며 지원 계

기를 밝혔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한화테크엠(주) 아산공장에 감사하다”며 “동호회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인 후원 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자는 아산장복 ☎041-545-7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지장협 달성군지회, 쌀 전달받아

(주)삼우농기가 지역 장애인 위해 후원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달성군지회(지회장 김용환, 이하 대구지장협 달성군지회)가 (주)삼우농기(대표 안영현)로부터 ‘사랑의 쌀’을 전달받았다.

대구지장협 달성군지회는 후원받은 쌀(20kg 80포)을 지역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장협 달성군지회는 “(주)삼우

농기의 지원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 받은 쌀은 장애인 가정 80세대에 빠짐없이 전하겠다”고 밝혔다.

(주)삼우농기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대구지장협 달성군지회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쌀을 지원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 | | |
|-----------------|---------------|----------------|
| 일반회원1 (2천원/월) | 일반회원2 (5천원/월) | 일반회원3 (1만원/월) |
| 특별회원1 (3만원/월) | 특별회원2 (5만원/월) | 특별회원3 (10만원/월) |
|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 기금회원 | 물품회원 |

■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4년 8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경민, 강성희, 김경아, 김경희, 김광배, 김광환, 김구환, 김동수, 김성운, 김수곤, 김순덕, 김영미, 김영진, 김인수, 김인순,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정희, 김준곤,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욱, 김환경, 나금숙, 문민숙, 박규도, 박소연, 박영심, 박은희, 박종순, 박종형, 박현순, 반형만, 방순임, 배태환, 백금희, 서동녀, 선병욱, 안병현, 우지현, 원명자, 원종빈, 유재복, 유종표, 육근록, 윤선민, 윤채환, 이남호, 이순영, 이용란, 이은정, 이태훈, 임채중, 장교선, 장추자, 정선용, 조기현, 조남희,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진미라, 최병철, 최선영, 하정미, 황보훈, 황정연, IBK경동본부.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 | | | | | | | |
|-----|-----|-----|-----|--|-----|-----|-----|
| 1. | 2. | | 3. | | 4. | | 5. |
| | 6. | 7. | | | ★8. | 9. | |
| 10. | | | | | | | |
| 11. | 12. | | 13. | | 14. | | 15. |
| | | | 16. | | | | |
| 17. | | 18. | | | 19. | 20. | |
| 21. | | ★ | | | | | |
| | | 22. | | | 23. | | ★ |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열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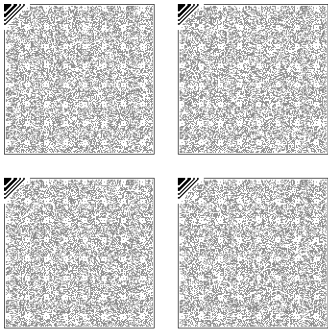
- 앞으로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미리 약속하여 두는 계약.
- 가장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도와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 찌개 따위를 끓이거나 설렁탕 따위를 담을 때 쓰는 오지그릇.
- 사람이 발성한 음성 의 의미를 컴퓨터 따위를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
- 고기를 다져 양념과 함께 만든 소.
-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
- 자동차 따위에 기름을 넣음.
- 어떤 문제에 관한 질문들을 열거한 지면.
-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

- 종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
- 산을 오르는 길.

| 세로열쇠 |

- 약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파는 곳.
- 자정부터 낮 열두 시까지의 시간.
- ‘위팔’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 영양물질을 속에 담아 인공적으로 미생물을 기르는 데 쓰는 기구.
-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
-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워 만든 가공 식품.
- 미인을 주제로 그린 그림.
- 여행, 취미 활동 따위로 주말을 즐기면서 보내는 무리. 또는 그런 사람.
- 학교 따위에서 문예에 관한 연구나 활동을 하는 모임. 흔히 신문이나 교지를 만드는 일을 맡기도 한다.

정답
요령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길에 세우는 말뚝.

8월호 정답

장애 등급

당첨
자

김서연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전영규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김정숙 울산시 중 구 삼산동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대덕면 수도산 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동형제캠프 ‘의좋은 형제’를 진행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이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이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결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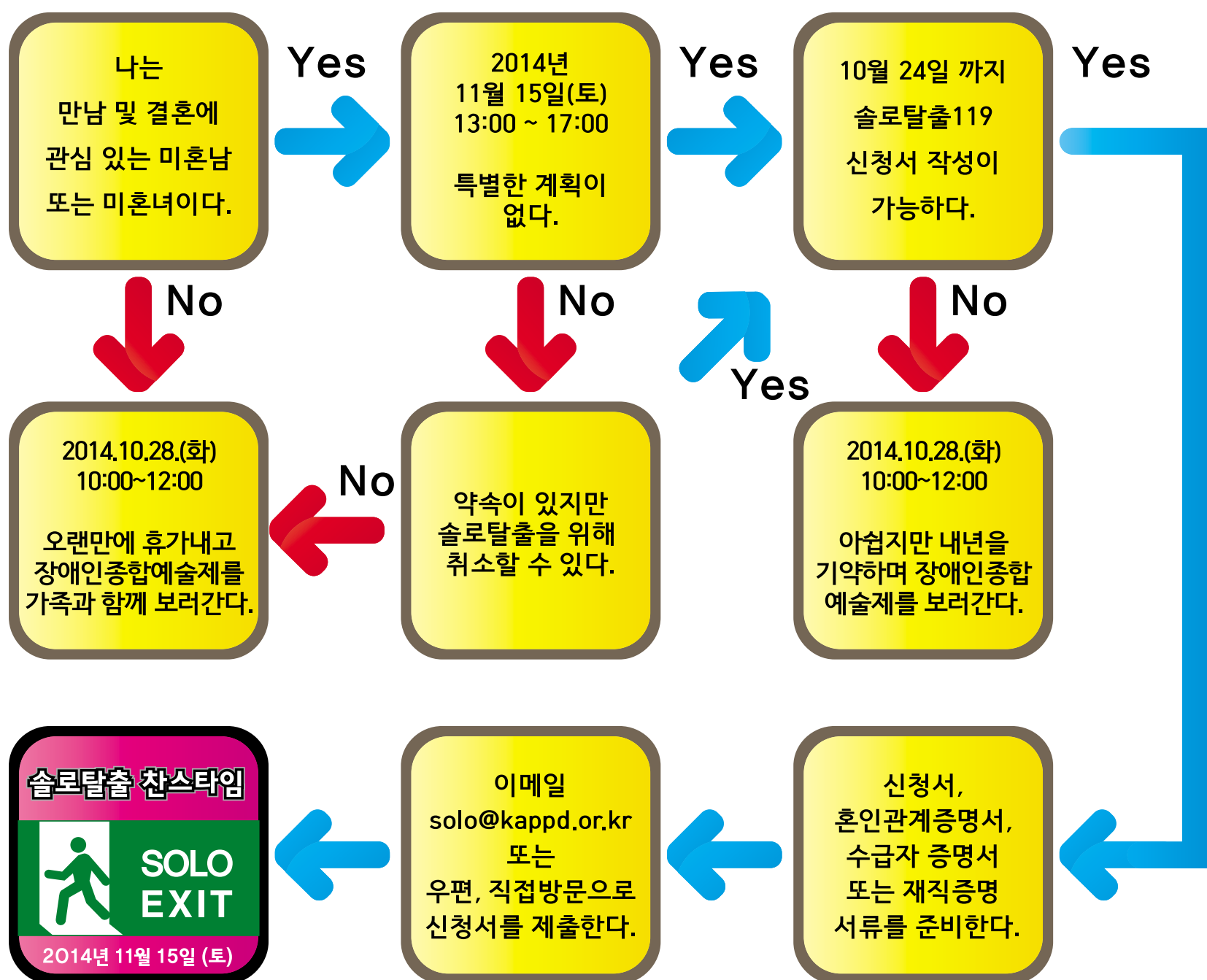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제7회 장애인 맞선 이벤트

솔로탈출 119



■ 일 시 : 2014년 11월 15일 (토) 13:00 ~ 17:00

■ 장 소 : 여의도 투게더 호텔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100m 부근)

■ 참가대상 : 장애여부 상관없이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만남 및 결혼에 관심 있는 미혼남녀 누구나

■ 참가규모 : 남녀 각각 20명(총 40명)

■ 신청기간 : 9월 15일 ~ 10월 24일(40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solo@kappd.or.kr), 우편,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국민 건강보험증 대체 가능)

■ 문의전화 : 02-2289-4322